

“추억’ 키워드 서사 자산…글로벌 도약 앞장”

황운기 제23회 추억의 총장축제 총감독

축제 기획·운영 전반 성과 탁월
퍼레이드 연구 공연예술학 박사
“문화자원 융합…시민 참여 확대”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총감독에 황운기(51)씨가 선임됐다. 광주 동구는 6일 오후 황 신임 총감독에 대한 위촉식을 열고 올해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황 신임 총감독은 ‘파워풀대구 페스티벌’의 총감독을 6회 연임하며 축제 기획과 운영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은 축제 전문가다. 이 외에도 그는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총연출을 10여년간 맡았으며 퍼레이드 축제 연구로 국내에서 처음 공연예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이론과 현장을 두루 섭렵한 국내 대표 퍼레이드 축제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 동구는 제23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총감독으로 황운기(오른쪽)씨를 선임하고 6일 오후 총감독 위촉식을 가졌다. <광주동구 제공>

앞서 동구는 지난해 총장축제가 막을 내린 직후인 11월부터 10여명의 총감독 후보군을 구성하고 인터뷰와 언론 분석, 연출 적합도 검토 등을 거쳤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후보 개별 면담 등 다각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황 신임 총감독을 최종

선정했다. 동구는 황 총감독의 전문성과 풍부한 연출 경험이 광주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총장축제의 핵심 콘텐츠 퍼레이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황 신임 총감독은 제

24회 총장축제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황 신임 총감독은 “총장축제가 지닌 ‘추억’이라는 키워드는 과거에 머무는 감상이 아니라, 세대와 지역, 문화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 자산”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의 퍼레이드 축제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총장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 구민을 중심으로 광주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단순 체험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계획”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연자와 스텝이 되는 순간, 총장축제는 비로소 살아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공연·전시·음식 등 다양한 문화 자원과 융합된 축제를 지향하며 지역 축제 인력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총장축제 안에서 지역 문화예술이 전국과 세계로 확산되는 아트마켓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감독으로서 책임과 설렘을 함께 안고 이 축제의 다음 장을 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재영 기자



광주환경공단·하나은행, 취약계층 ‘온정 이불’ 나눔

광주환경공단과 하나은행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공동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및 관계자들은 6일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을 찾

아 300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25채를 전달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행사는 2023년부터 하나은행 동천동지점과 지속해 온 지역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친환경 위생앞치마 기부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광주국제개발협력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에서 친환경 위생앞치마 기부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간 협력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된 앞치마 6천장은 광주·전남 지역 백년가게 10여곳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김명신 (주)쿠키아 대표, 농촌융복합 ‘대통령 표창’

전남도는 6일 “여수 두부과자 제조업체 (주)쿠키아의 김명신 대표가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로로 농촌융복합산업 분야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쿠키아의 대표 제품 ‘두부과자’는 전남도 공식 소품목인 ‘남도장터’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쿠키아는 한솔영농조합법인, 여수잡곡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재료 수급 체계를 갖췄다. 원재료 사용량은 2018년 38에서 2024년 110으로 약 3배 늘어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또 창업 초기 정규직 8명이던 인력을 2024년 32명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16명을 청년으로 채용해 청년고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 북구, 경로당 50곳 태양광 설비 무상 설치 협약

광주 북구는 6일 “(사)대한주차산업협회와 2억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박막형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50대를 설치하고 사후 관리를 맡으며, 북구는 설치 대상 경로당을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박막형 태양광 설비는 가볍고 발전효율이 높아 노후 경로당에도 설치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 복지와 에너지 절약을 함께 실현하는 계기



가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인사

광주시 ◇5급 정보 ▲대변인 성문영 ▲정책기획관 김대성 ▲정책기획관 최민성 ▲인구정책담당관 강현애 ▲인구정책담당관 양지은 ▲인구정책담당관 최리라 ▲혁신평가담당관 김미혜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신재경 ▲국제교류담당관 김주향 ▲법무담당관 나정은 ▲사회재난과 이재욱 ▲총무과 김복용 ▲총무과 김선환 ▲시민소통과 박지만 ▲세정과 나인영 ▲세정과 이승수 ▲세정과 이한태 ▲회계과 정석원 ▲인권평화과 최희숙 ▲고령사회정책과 김미숙 ▲고령사회정책과 전예성 ▲공공보건의료과 송정태 ▲외국인주민과 정국환 ▲도시계획과 이성주 ▲건설행정과 구재영 ▲대중교통과 주보성 ▲미래도시기획단 강성용 ▲군공항건설단 이정화 ▲도로과 이민국 ▲광역교통과 김종규 ▲광역교통과 박효정 ▲교통운영과 조상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윤규술 ▲노동일자리정책관 임상국 ▲문화정책관 이석기 ▲문화유산자원과 정종환 ▲문화유산자원과 한소리 ▲체육진흥과 정영미 ▲미래산업총괄관 박지혜 ▲미래

산업총괄관 이정선 ▲투자산단과 김정은 ▲AI반도체과 정미애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송지연 ▲창업진흥과 최기광 ▲농업동물정책과 주호연 ▲청년정책과 김선일 ▲청년정책과 김영순 ▲교육지원정책과 서승희 ▲자치경찰위원회 신동호 ▲감사위원회 김정문 ▲감사위원회 이지연 ▲인재교육원 창의교육담당관 이정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장 이현정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김재석 ▲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장 이순형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순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김형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정아빈 ▲관광도시과 유은옥 ▲AI반도체과 노승필 ▲돌봄정책과 유지영 ▲돌봄정책과 정유선 ▲고령사회정책과 송안선 ▲장애인복지과 안미리 ▲장애인복지과 장한나 ▲감사위원회 김경명 ▲기후대기정책과 정진근 ▲교통운영과 나우철 ▲교통운영과 정희진 ▲에너지산업과 박서연 ▲교육지원정책과 백광정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박한이 ▲공공보건의료과 양지은 ▲건강위생과 박주연 ▲로봇가전의료산업과 장미선 ▲물관리정책과 박승열 ▲환경보전과 윤병

울 ▲자원순환과 심경아 ▲자원순환과 윤관주 ▲자원순환과 조효동 ▲도로과 김승준 ▲투자산단과 박석길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박진성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장 문효식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김해미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최웅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 서주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 최영호 ▲사회재난과 박흥철 ▲관광도시과 백길성 ▲민주보훈과 공현주 ▲공간혁신과 양태영 ▲건축경관과 기윤 ▲주택정책과 안태명 ▲문화도시조성과 박정철 ▲도시철도건설본부 안전관리실장 김성원 ▲주택정책과 김상준 ▲토지정보과 김형석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김일규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박경수 ▲사회재난과 김대영 ▲AI반도체과 이종근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장 박병훈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조사과장 서희정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 윤상훈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조광운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원정수관리과장 박용훈 ▲관광도시과 정은선 ▲회계과 정진혜 ▲노동일자리

책관 장수진 ▲군공항건설단 박태균 ▲미래차산업과 오신영

광주시의회 ◇4급 승진 ▲광주시의회(교육과전) 류광웅 ◇4급 정보 ▲흥보소통담당관 주상현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경민 ◇5급 정보 ▲의정담당관 한공신 ▲흥보소통담당관 정황중 ▲입법조사담당관 신준호 ▲입법조사담당관 김연식 ▲교육문화전문위원 김성광 ▲산업건설전문위원 민선진 ▲광주시의회(교육과전) 조미라

동신대 ▲에너지공과대학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조중현 ▲한의과대학장 정현우 ▲보건복지대학장 최진아 ▲사회문화대학장 안형순 ▲글로벌자율전공대학장 박재민 ▲미래라이프대학장 조준 ▲에너지공과대학 교학과장 이태원 ▲글로벌자율전공대학 교학과장 유양호 ▲학생생활관장 이상준 ▲인권센터장 겸 인권센터 성평등부장 임종희

홍연화 광주 남구 국장 ‘대통령 표창’

홍연화(사진) 광주 남구 희망복지국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6일 남구에 따르면 홍 국장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함께 포상금 30만원을 받았다. 홍 국장은 1993년 공직에 입문한 뒤 33년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체 5억원가량의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등 민간협력 중심의 복지 사업을 펼쳤다. 또 각종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15억원에 달하는 29건의 사업을 추진, 관내 돌봄 이웃 5천여명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홍연화 국장은 “주민들 모두가 촘촘한 복지 안전망 내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광주대 시무식…“지속가능 발전” 다짐

광주대학교는 지난 5일 호심관 소강당에서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학교법인 호심학원 광주대학교 시무식’을 열어 새해 덕담을 나누고,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짐했다. 교직원을 대표해 김충명 교수협의회장과 나금은 직원친목회장의 신년인사와 ‘2026년 함께 여는 새로운 빛’ 희망메시지 릴레이 영상 시청, 전체 구성원 악수, 떡국 오찬을 함께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송숙남 호심학원 이사장은 “광주대학교는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맞고 있다”며 “김동진 총장의 젊은 감각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고 성실한 태도로 판단을 이어가는 리더십을 발판 삼아 광주대가 웅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은 “2026년에는 성과를 재촉하지 않고 이미 자라고 있는 열매들이 제때 햇빛을 받고 제때 수확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선옥 기자



나주소방시무식…“재난대응 역량 강화”

나주소방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최근 시무식을 갖고 한 해 각오를 다지는 등 지역 안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6일 밝혔다. 시무식에는 신항식 서장을 비롯해 각 부서과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이 참석해 ▲화재 예방 강화 ▲재난 대응역량 향상 ▲구조·구급 서비스 품질 제고 등 2026년 주요 업무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지난해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항식 서장은 “지나해 큰 사고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재난의 규모는 대형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본사손님

▲정일선 광주은행장 ▲이성재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 부부장